



“네 꿈을 맘껏 펼치렴”

손연재 리듬체조 출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개인종합 예선 경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현지시간) 런던 웹틀리 아레나에서 공식 훈련을 하고 있다. 손연재가 출전하는 리듬체조 개인종합 예선은 9일 낮 12시(한국시각 밤 8시)부터 이틀간 열린다. /연합뉴스

탁구 단체 은메달 '올드보이 3인방'

“후배들이 중국을 넘어다오”

유승민·주세혁·오상은 녹색테이블 마지막 불꽃



2012 런던올림픽 탁구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한국 남자 탁구 대표선수들이 후배들에게 최강 중국을 넘어달라고 당부했다.

주세혁(세계랭킹 10위·삼성생명), 오상은(11위·KDB대우증권), 유승민(17위·삼성생명)은 8일(현지시간) 열린 대회 12일째 탁구 남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중국에 0-3으로 져 은메달을 따냈다.

모두 나이 서른을 훌쩍 넘긴 베테랑 선수들로 런던을 생애 마지막 올림픽 무대로 삼고 세계 최강 중국의 아성에 도전했지만 장지커(1위), 마룽(2위), 왕하오(4위)가 버틴 중국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 불꽃을 태워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낸 이들은 패배를 받아들이면서도 후배들은 반드시 중국을 이겨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내놓았다.

유승민은 “동료와 함께 어렵게 딴 은메달이고 후회는 없지만 이번에 꼭 중국을 꼭 이겨보고 싶었다”며 “그래도 결승에 올라 중국에 도전한 것만도 한국 탁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천받아서 단체전에 출전해서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심적 압박과 부담이 컸다. 지금까지 후배들은 ‘형들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후배들도 그런 부담을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세혁은 “올림픽을 앞두고 베테랑으로 두 달 가까이 훈련을 못해 개인전에서도 부진했는데 유남규 감독님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셨다”며 “그 덕에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 기쁘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오늘 장지커와 경기 초반에 느낌이 좋았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수비위주로 경기하면서 상대 범실을 기다렸지만 중국 선수들이 실수가 없었다”고 이날 경기를 돌아봤다.

그는 또 “당장 은퇴를 하지는 않겠지만 다음 올림픽은 힘들다고 본다. 후배들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 아시안게임과 4년 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우리보다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8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남자 탁구 단체전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한국선수들이 손을 들어 환호에 담고 있다. 왼쪽부터 주세혁, 오상은, 유승민. /연합뉴스

팀의 '말형' 오상은은 “그동안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고 싶어 마지막으로 노력해왔지만 은메달로 내 올림픽이 끝났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이제는 그동안 도운받아온 것들을 후배들에게 베풀고 전수하겠다”고 후배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탁구가 중국을 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유승민은 “중국과 독일 모두 탁구가 프로화 됐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선수층도 얇다. 그런 상황에서 은메달은 적지 않은 성과지만 정상에 가려면 프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제탁구연맹회장 “중국 독주 막아야”

이담 사라라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이 중국이 올림픽 탁구 메달을 휩쓴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영국 공영 BBC 방송이 전했다.

중국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엑셀 런던 노스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탁구 단체전에서 3-0으로 한국을 꺾었다.

중국을 이날 우승으로 4년 전 베이징 대회에 이어 2회 연속으로 탁구에 걸린 네 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위용을 과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처음 도입된 후 중국은 지금까지 탁구에 걸린 금메달 28개 중 24개를 가져갔다. 대개의 경우 은메달과 동메달도 함께 가져갔지만 이번 올림픽부터는 단식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의 수가 국가당 남녀 2명씩으로 제한하는 등 모든 메달을 휩쓴 것은 막았다. 사라라 회장은 “중국이 탁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전파해야 한다”며 “한 국가가 특정 스포츠를 오래 지배하면 세계는 이에 질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앙아 강슬기 '희망의 발차기'

아프리카 태권도 대표로 출전

친구들에 희망 심어주고 싶어

“TV로 보고 있을 아프리카 친구들이 상처받을까 봐 미안해요. 저 때문에 태권도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표로 2012 런던올림픽 태권도 경기에 출전한 강슬기(25)는 친구들 이야기를 꺼내며 결국 꼭 꼭 눌러왔던 눈물을 터트렸다. 강슬기는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엑셀런던 사우스아레나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첫 경기에서 루시야 자나노비치(크로아티아)에게 2라운드 만에 14-0, 큰 점수 차 패배를 당했다. 수원정산고와 우석대를 나온 강슬기는 2009년 선수 생활을 접고 벨기에로 건너가 태권도 트레이너로 일했다. 그러던 중 이틀도 생소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시 선수로 뛰어 올림픽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강슬기는 계속 거절했다. 강슬기는 국내에서도 이름을 날린 선수는 아니었다. 국가대표로 뽑힌 적도 없다.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 설 만큼 나는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끈질긴 구애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2010년부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표로 선수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이 나라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한 것은 올해다. 이곳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강슬기는 런던올림픽 아프리카 대륙 선발전에서 2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려온 올림픽 무대는 2라운드, 4분 만에 끝났다. 강슬기는 “연습한 것에 비해 너무 결과가 안 좋아 창피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이번 대회에 태권도, 육상, 수영, 레슬링에 남녀 각각 3명씩, 총 6명을 출전시켰다. 다른 나라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강슬기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음고생도 적지 않았다. 강슬기는 이번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205개 나라의 개개식 기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다. 강슬기는 실망스런 경기 결과보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친구들 걱정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면서 “친구들이 온종일 내 결을 지켰다. 그 것이 내게는 큰 자국이 됐다”고 밝혔다. 강슬기는 “내가 저서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그래도 친구들이 태권도에 대한 사랑은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태권도 이대훈 아쉬운 은메달

8일(현지시간) 2012 런던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이대훈(20·웅인대)에게 4년 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58kg급과 68kg급에 선수를 내보낸다면 어떤 체급에 도전해보고 싶은지 물었다.

이대훈의 대답은 “많이 먹고 68kg급에 출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대훈은 원래 63kg급에 출전하던 선수다. 하지만 올림픽 출전을 위해 남자 58kg급으로 체급을 낮췄다.

올림픽은 세계선수권대회나 아시안게임의 절반인 남녀 4체급씩, 총 8개 체급으로 나눠 기량을 겨룬다. 우리나라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남자부는 68kg급과 80kg초과급에만 출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68kg급 대신 58kg급을 선택했다. 68kg급에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 58kg급에서 금메달을 쫓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대훈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이대훈으로서의 체중과의 싸움이 우선이었다. 이번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8kg 가까이 살을 빼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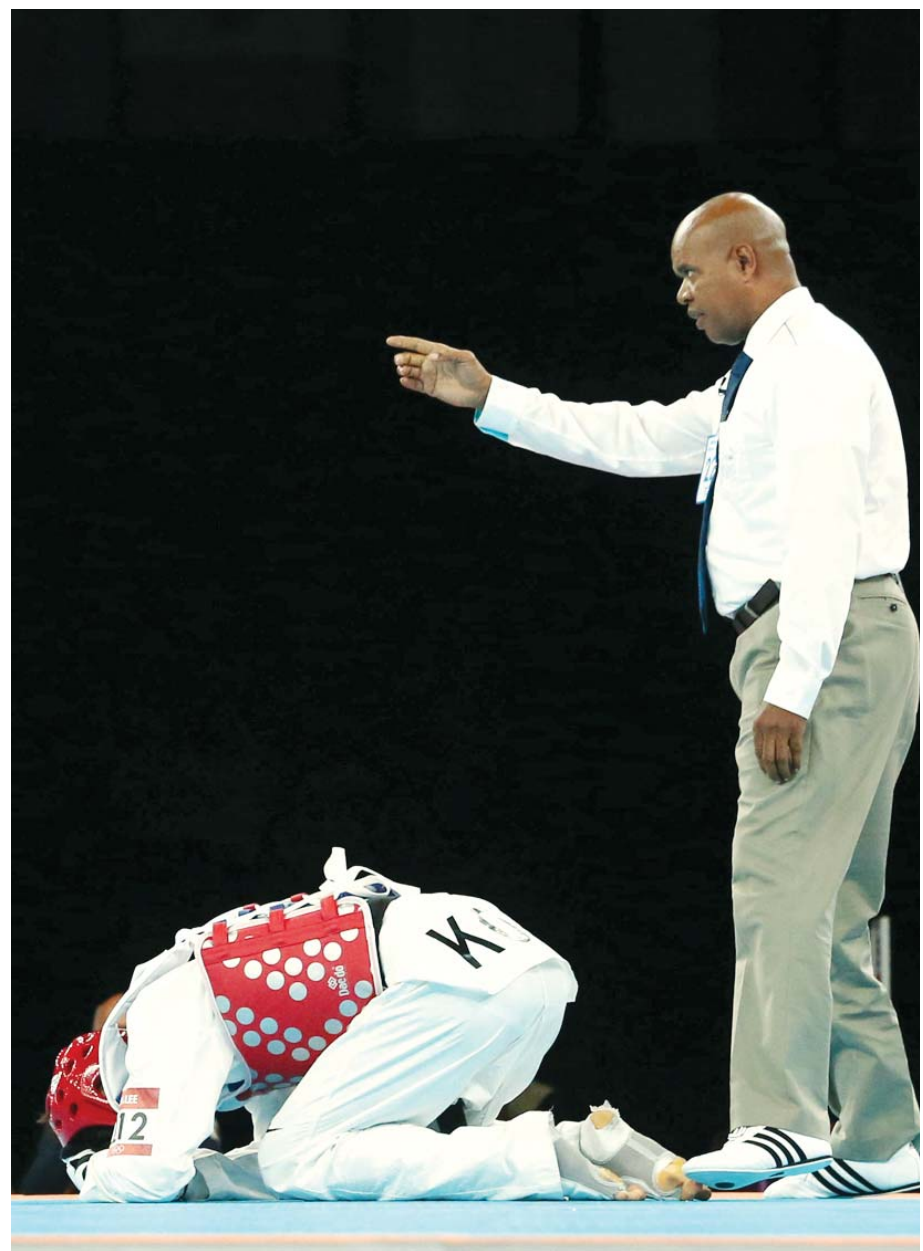
이대훈은 이날 경기 후 “체중을 많이 줄이다 보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에는 체중을 줄이지 않고 재밌고 화려한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경기 일정

- ◇10일(한국시각)
 - ▲19시00분 태권도 여자 -67kg급 예선 황경선
 - ▲20시00분 리듬체조 개인종합 예선 로테이션 손연재
 - ▲21시00분 레슬링 남자 자유형 55kg급 김진철
- ◇11일(한국시각)
 - ▲03시45분 남자 축구 3-4위전 한국 vs 일본
 - ▲05시15분 복싱 남자 라이트급(60kg)

- 준결승 한순철
- ▲16시45분 근대 5종 남자 펜싱 황우진, 정진화
- ▲17시00분 육상 남자 50km 경보 박철성, 김동영, 임정현
- ▲17시15분 태권도 남자 +80kg급 예선 차동민
- ▲17시30분 태권도 여자 +67kg급 예선 이인중
- ▲21시20분 근대 5종 남자 수영 황우진, 정진화



8일 밤(현지시간) 2012런던올림픽 태권도 -58kg급 경기에 출전한 한국의 이대훈이 스페인 보니아와의 결승전에서 안면공격을 허용한 후 경기장에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